

## 北, 이산가족 상봉 중단 선언

### “南, 쌀·비료 지원 거부로 난관 조성” 주장

#### 8·15 화상상봉도 거부...정부 “유감”

북한이 남측의 인도주의적 지원 중단 이유를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장제인 북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19일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측은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북남 사이에 그동안 상부상조 원칙에서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진행해오던 쌀과 비료제공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중단 선언으로 인해 남북 관계는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남북 경협이나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교류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결의안이 통과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된 시점에서 이같은 조처로 인해 우리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관련기사 3·4·7면>

북측은 이날 편지를 통해 “우리측

은 북남 사이에는 더 이상 흠어진 가족, 친척 상봉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게 되었고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한 그 어떤 논의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인정한다”며 “8·15에 예정돼 있던 특별 화상상봉도, 금강산면회소 건설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또 “6·15공동선언에 밝혀진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맞게 북과 남 사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이 계속 진전되기를 바랐으나 최근 (남측이) 이런 이념과 기대에 어긋나게 인도주의 협력사업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했다”며 “이는 최근 우리를 적대시하면서 대북제재 소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동족 사이의 인도주의적 사업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북측은 이어 “동족 사이의 인도적 문제까지도 불순한 목적에 악용해 외세에 팔아먹은 조건에서 북남 사이에

는 인도적 문제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를 마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측의 이같은 반응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11~13일 부산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정부는 북측의 쌀 차관 제공요구에 미사일 발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

달했으며, 북측은 회담을 하루 앞당겨 끝내며 “응당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양창석 통일부 홍보관리관은 이날 “이산가족 분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엑스포 여수유치 가능성 높다”

####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 인터뷰 ▶2면

방한 중인 로세르탈레스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이 ‘2012 엑스포 유치와 관련된 여수의 경쟁력 높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또 엑스포 유치를 못한 대륙이나 나라를 배려하는 원칙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성공의 최우선 조건이라고 밝혔다.

일본 아이치(2005년), 중국 상하이(2010년) 엑스포 등 아시아권에서 엑스포가 잇따라 열리며 따라 상대적으

로 여수 유치가 어렵다는 일반적인 분석을 불식한 것이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19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광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여수 엑스포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있는데다 주제도 국제적인 관심 및 엑스포 성격에 부합한다”며 “특히 여수 시민의 열정적 유치 의지가 절대적 경쟁력이다”고 밝혔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2012년

엑스포 여수 유치의 최대 경쟁국으로 떠오른 모로코 탕헤르에 대해서 “BIE의 정관에 엑스포를 유치하지 못한 대륙이나 나라를 배려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준비가 잘 된 도시가 유치성공의 최우선 조건”이라면서도 “모로코의 엑스포 유치 의지는 한국 못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2년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야! 방학이다”

광주와 전남지역 초등학교가 20일부터 일제히 여름 방학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21일과 24일 이후 여름방학을 한다. 광주지산 초교 학생들이 19일 오전 10시30분 방학식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집을 향해 뛰어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李통일 “6자회담 복귀가 해결책”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9일 북측이 더이상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보다 빠른 시간에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보고 이산가족 상봉도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SBS ‘한수진의 선데이클럽’과 인터뷰에서 북측의 통보 내용을 쌀과 비료 지원 없이는 상봉을 계속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영구히 (쌀과 비료를) 안 줄 수는 없고 안 준다면 이 사태가 영구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이 빨리 문제를 해결해 (쌀과 비료) 지원을 재개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 해법에 대해서는 “당장은 소강상태인

데 시간이 지나면 복귀될 것으로 생각하며 미사일 문제의 출구를 찾으려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창석 통일부 홍보관리관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로서는 이산가족 분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지원이 재개되도록 상황 호전을 위해 북측이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대북지원 재개를 위해서는 미사일 문제의 출구로 거론되고 있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필뉴스>

## “원구성 담합’ 기초의원 제명”

#### 민주당, 광주 서·북구·영암의회에 진상조사단 파견

#### ‘광주시의회 파행’도 조사...지역정치권 반발 예상

민주당은 지방의회 의장단 등 원(院)구성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등 타당 의원들과 담합, 의장직 등을 차지한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기초의원들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당원 자격정지 등 강력한 징계를 단행하기로 해 지역 정치권에 큰 파문

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민주당은 또 의장 선출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광주시의회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의원들간 의장직무 정지가처분 신청과 당선무효 소송 등 일련의 법적 쟁송 절차가 마무리된 뒤 윤리위원회에서의 징계 여부를 결

정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민주당 배기운 사무총장은 “오는 21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원 구성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 등과의 담합 등을 통해 의장직 및 삼임위원장직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기초의원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사무총장은 “21일에는 우선 광주 서구의회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

어 징계를 결정할 것이며 다른 지역 기초 의원들에 대해서는 실사 결과 나오는 대로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총장은 또한 “타당 의원들과의 담합을 통해 의장직 및 삼임위원장직을 차지한 것은 민주당의 명예를 실추한 측면이 크므로 징계 수위도 제명 및 당원 자격정지 등 강력하게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장 선출과정에서 주류와 비주류의 불협화음으로 ‘의장 단호력정지가처분신청’과 ‘의장단 선출 원인무효소송’ 등이 법원에 제출된 광주시의회에 경우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후 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단순히 타당 의원들과의

연대를 통해 의장직에 당선됐다는 사실만 놓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지방 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연속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어 민주당의 지방의원 징계 방침이 상당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익활동 장학5000 원사업 진행

남부대학교  
<http://www.nmbu.ac.kr>

▶ 상담전화 010-9701-4114 ▶ T.062-970-4201-4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 상담전화 010-9701-4114 ▶ T.061-360-3000

민족의 숨겨진 보물 창고! 민족의 건강을 위하여! — 신동제약주식회사

# 버미플루 1알로

## “환히 웃는 우리가족”

1회 1정 먹는 구충제 - 버미플루  
 회충, 오충, 편충, 십이지장충을 한번에 없애줍니다.

복통, 황문주위의 가려움,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기생충은 인체의 장내에서 피를 빼앗아 가며, 식욕부진, 위통, 설사, 빈혈의 원인입니다. 1회 1정으로 회충, 오충, 편충, 십이지장충을 한꺼번에 없애주는 구충제 - 버미플루 이제부터 기생충으로 인한 가족의 질병은 버미플루로 지켜주세요.

1회 1정 복용하는 구충제 — 버미플루 정

버미플루 정은 신동제약주식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관련기사 1면>